

농산어촌 거주 유자녀 가정의 도시로의 이주: 이동 시점과 예측 요인 탐색을 중심으로*

Migration of Rural Families with Children to Cities: Exploring Moving Points and Predictors

1차원고접수: 2023.07.05. 수정원고접수: 2023.08.28. 최종게재결정: 2023.09.15.

신나리¹ · 최유미² · 김경화³

¹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²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³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Shin, Nary¹

Choi, Yumi²

Kim, Kyeonghwa³

^{1,2,3}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유자녀 가구가 어떤 시점에 도시로 이동하는지와 이러한 이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 1차 ~ 12차 자료 중 1차년도에 읍 또는 면에 살고 있는 265가구로, 생존분석 방법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자녀 가구 265가구 중 2가구를 제외한 263가구(99.2%)가 도시로 이동했으며, 이주율이 높았던 시기는 자녀 연령이 만 1세와 초등학교 입학 전 만 6세인 때로 나타났다. 도시 이동 최초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연령, 아버지의 직업 변동 및 가구의 소득 수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의 성별, 순위 형제 유무, 사회적 지원은 이동 확률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 유자녀 가구가 읍·면 지역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육아 및 교육 인프라 개선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필요를 제시하며, 추후 자녀를 둔 가정에 필요한 요구를 파악하여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농산어촌 유자녀 가정, 도시 이주, 생존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time at which households with children in rural areas move to cities and the factors that can predict this migration. The first to twelfth wave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were analyzed using survival analysis for this study. As a result, 263 households (99.2%) of the 265 households with children residing in a rural area moved to the city, and the period when the migration rate was high at the time when the child was one year old and six years old, just before entering elementary school. Predictors influencing the initial timing of migration to cities, parental age, father's job change, and household income level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the child's gender, older siblings, and social support did not explain the probability of moving. These result shows that substantial policies to secure quality jobs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childcare and educational infra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to continue to reside in a rural area and to prevent the crisis of extinction due to depopulation.

Keywords rural families with children, move to cities, time survival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정안전부(2023. 1. 15)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수는 약 5,140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0.39%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저출생으

로 인해 발생하기 시작한 인구 감소는 2020년 이후 빠르게 진행되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는 그간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진입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저출생의 이슈가 총인구의 감소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인구 감소에 주목하는 시각은 이미 저출생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의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5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Corresponding to 최유미 (Choi, Yumi)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choiyum0223@naver.com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에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 및 출산 지원 확대,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 등을 중심으로 저출생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후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저출생 정책 또한 관점과 내용의 변화가 있어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삶의 질 개선, 성평등 확립 등이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19.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그동안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생산인구 감소에 초점을 둔 것과는 달리 인구 규모에 두고 있다. 즉 감소하는 인구수가 인구의 지역적 분포와 맞물려 지방인구 감소로 이어질 위기에 봉착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중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42.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인구의 과반에 해당하는 50.1%로 나타나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다(통계청, 2020. 6. 29). 이러한 역전 현상은 지방인구 감소의 원인을 저출생에 의한 자연적 감소로 인식되었던 것에서 최근에는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의 증가로 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간의 인구 격차는 지역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이다. 즉, 비수도권 내에서도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인구 유입 비율은 상위 지역인 데 반해 읍·면 지역은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감사원, 2021). 이같이 읍·면 지역의 가구가 도시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구 감소는 지역 규모 간 격차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재정문제 발생, 사회문화 여건 및 지역 내 기반 시설의 악화로 이어지는바,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a).

주거 이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실시된 연구 주제로, 가구의 주거 이동은 주거지의 환경적 특성(권동현, 이영호, 2007; Pagani, Baur & Binder, 2021)이

나 소득 또는 일자리 등의 경제적 특성(유기현, 정희주, 서준탁, 2013; 임미화, 2013; 정의철, 2000; Chen & Rosenthal, 2008)과 같은 거시적인 접근 그리고, 개별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이동의 미시적인 접근(이창효, 이승일, 2012; 정의철, 2000; 정재은, 박천규, 2015; Clark & Onaka, 1983)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 중 가족의 생애주기는 결혼, 자녀 출생 및 학업, 은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가구의 특성으로, 이러한 주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거의 이동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Rossi, 1955). 이는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로 인해 주거의 욕구가 달라지며, 주택을 교체할 수 있는 소득과 가구의 소비 수준 또한 변화하기 때문이다(김민철 등, 2016; 박천규, 이수옥, 손경환, 2009; 정희수, 권혁일, 2004).

그간 기존 주거 이동 연구들이 가족의 생애주기별 소득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 교육 및 양육 환경 특성, 문화와 여가 등의 사회·문화적 요구에 주목하였다면 최근에는 주거지의 이동이 아닌 지역 간 인구 유입 및 유출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유한별, 탁근주, 문정승, 2021; 이상림, 이지혜, Bernhard Köppen, 임소정, 성백선, 2018). 특히, 자녀 출산 및 양육은 결혼 후 생애주기 상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주거 지역의 선호와 다양한 요구를 발생시킨다(Rashidi, 2015). 따라서 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주거 이동에 주목하는 것은 지역 간 이동을 탐색하는 데 유용한 접근일 수 있다. 특히, 지역소멸과 관련하여 주거 이동을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농산어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유자녀 가구의 생애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의 연령은 주거에 대한 요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영유아기 자녀들 둔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영유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보육·교육의 경험과 이외의 다양한 공공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의 만족도가 주거 이동에 주요 이유가 된다. 한편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학교나 학원의 이용 가능성은 주거 결정의 중요한 요인에 해당한다(권동현, 이영호, 2007;

손희주, 남궁미, 2018; 장한두, 2010). 이같이 거주 지역 내 양육 지원 인프라의 가용성과 교육 인프라의 편리성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김대웅, 김창숙, 박윤현, 2019), 이들 인프라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인다. 실제로 농산어촌 지역의 부모들은 학원, 보육시설, 문화센터 등 자녀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을 큰 불편함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역사회를 떠나야 한다는 부담감도 안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김은설, 이정원, 지성애, 이세원, 2007). 또한, 농산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주거 지역이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낮은 영유아 인구로 민간사업자의 진입이 적어 보육 및 교육시설의 접근성 및 질적 수준이 낮아 우수교사 유치와 추가 배치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양미선, 이윤진, 한재희, 장혜진, 정도형, 2021). 결과적으로 농산어촌 아동은 도시 아동보다 문화 실조와 사회적 배제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한숙, 문혁준, 2010).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유자녀 가구의 요구를 살펴본 이윤진과 이정원(2014)에 따르면 대도시 부모들은 문화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반면, 읍·면 지역 부모는 문화시설의 확충을 꼽았다.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교육과 여가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함과 동시에 다양한 교육적, 문화적 경험에 있어 소외될 수 있기에 도시 주거 이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주거 이동과 관련하여 자녀의 연령뿐만 아니라 자녀의 수를 살펴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적 목적으로 주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자녀 가정이 외동이를 둔 가정보다 더 이른 나이 주거 이동을 결정한 가능성이 높고, 막내보다는 첫째 자녀의 나이가 교육목적의 주거 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한두, 2010; 정재은, 박천규, 2015). 이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구원 수가 증가하여 주거지의 필요한 공간이나 주택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전통적인 관점을 확장하는 것으로(장재원, 2014; 정

재은, 박천규, 2015) 읍·면 지역에서 도시로 주거 이동을 하는 유자녀 가구의 특성 중 자녀의 연령뿐만 아니라 자녀 수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주택시장의 변화로 인해 도시 지역의 거주 비용이 더 비싼 상황에서, 더 넓은 공간을 요구하는 다자녀 가정이 외동아 가정에 비해 도시 지역을 선호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연령은 주거 이동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린 자연환경과 시장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상업 시설을 선호하며 한 곳에서의 주거 기간이 길어 이동률이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이경희, 민인식, 2017; 최진호, 2008).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자녀 가구의 부모 연령이 단순히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요구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나 자신의 생활 습관 등을 반영하므로, 주거 이동에 추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한 주거 이동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가구의 소득 수준과 소득에 미치는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주거지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중 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주거지의 입지와 주택 유형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최막중, 임영진, 2001). 주변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전입하기 위해 높은 소득이 필요한 것은 필수적이며,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 동일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유기현 등, 2013). 특히 유자녀 가구의 경우 주거선택에 있어서 실질 소득이 중요한 요인인 만큼(장재원, 2014), 소득 수준에 따라 읍·면 거주 가구의 도시 지역 이동 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직업은 도시로의 유입과 유출이 일어나는 가구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권상철, 2005). 최진호(2008)에 따르면, 시·도간 가구의 이동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6.8%가 직업 변동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는 구직 및 취업, 근무지 이동 순이었다.

임미화(2013)는 가구주의 직업이 상용직일수록 주거 이동률이 낮았고, 가구주가 남성이면 주거 이동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도시 지역의 인구 유입 원인이 읍·면 지역의 부족한 일자리 및 고용안정성과 관계될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직업과 이직 여부가 가구 이동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주거 이동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지지란 사회관계망 안에서 존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으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보살핌과 도움을 받는 경험 등을 의미한다(Wills, 1991).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망은 알고 지내는 사람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 내 다양한 관계망 내에서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할 때 이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홍승범, 박혜경, 2013). 일반적으로 중년기 이후의 경우 현재의 주거를 유지하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홍선관, 2017),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 부모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영유아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낮추는바(황정은, 한송이, 2017), 친구나 이웃 등으로부터 받는 도움이 안정적인 부모의 양육을 하는 데 도움을 받아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높은 사회적 지지 수준은 유자녀 가정의 주거 이동을 낮추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 위기가 앞으로 계속될 때 지역 간 격차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유출되는 농산어촌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화될 때 도시의 높은 인구밀도는 사회경쟁을 심화시키고, 결국 다시 출산율 저하를 가져와 인구문제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속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증가뿐 아니라 현재 농산어촌에서 사는 유자녀 가구가 도시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구 유출 심화와 지방소

멸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의 격차를 줄이고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농산어촌 거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힘쓰고 있다.

주거 이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구의 장소 이동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주 가구에 대한 특성을 잘 살펴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거 이동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광역시 내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산어촌 지역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가구의 특성을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창효, 이승일, 2012; 최막중, 임영진, 2001; 최열, 김영민, 조승호, 2010; 최진호, 2008). 더욱이 종단적인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개별 가구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거 이동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산어촌에서 자녀를 둔 가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시점과 특성을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생존분석은 연구자가 특정 사건이 특정 시점에서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시간 변인, 즉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에 사건 발생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최현철, 2016). 여기에서 사건이란 사망, 결혼, 이직, 자퇴 등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존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사건이 발생한 중도절단(censoring) 사례를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Singer & Willett, 1993).

패널자료와 같이 중도절단 사례를 포함하는 종단자료는 생존분석에 유용한 자료이다(박진아, 장유진, 2015). 국내의 다양한 패널자료 중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은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중 전국에서 표집이 된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추적 조사 중이며, 개별 가구가 소재하는 도시 규모와 가구 이동 여부에 관한 12년간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중 농산어촌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자녀 출생 이후 어떤 시점에 도시로 이동하는지와 이러한 이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읍·면 소재 유자녀 가

구의 도시 이동 시점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 보고, 지역 간 균형적인 주거 정책과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읍·면 소재 유자녀 가구가 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자녀와 부모의 특성 요인이 읍·면 지역 유자녀 가구의 도시 이동 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한 한국아동패널의 제1차(2008년)부터 제12차(2019년)까지 총 12년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층화 2단계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2008년 4월부터 7월 중 출생한 2,150명 신생아의 가구를 1차년도 표본으로 한다(신나리, 안재진, 이정림, 송신영, 김영원, 2008). 초

기 구축된 1차년도 표본 중 12차년도까지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총 1,412가구로, 1차년도 표본의 65.7%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표본 중 가구의 소재지가 행정구역상 읍 또는 면에 해당하는 507가구를 1차로 선정하고, 이들 가구 중 12차년도까지 누락 없이 조사에 참여한 421가구를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아동, 부모와 가구 특성에 누락 없이 응답한 265가구를 연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그림 1 참조).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1차년도인 2008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자녀의 경우 남아가 134명(50.6%), 여아는 131명(49.4%)으로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순위 형제가 있는 경우는 133명(50.2%)으로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경우가 반수 이상이었다.

부모의 경우, 연령은 아버지의 80% 가량이 30대인 반면 어머니는 30대의 비율이 58.2%에 불과하였다.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고졸 이하 39.6%, 대학교 졸업 이상 33.2%, 전문대 졸업이 27.2%의 순으로 고졸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 또한 고졸 이하 38.9%, 전문대 졸업 31.7%, 대학교 졸업 이상이 29.4% 순으로 나타나, 고졸 이하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아버지 직업은 기능직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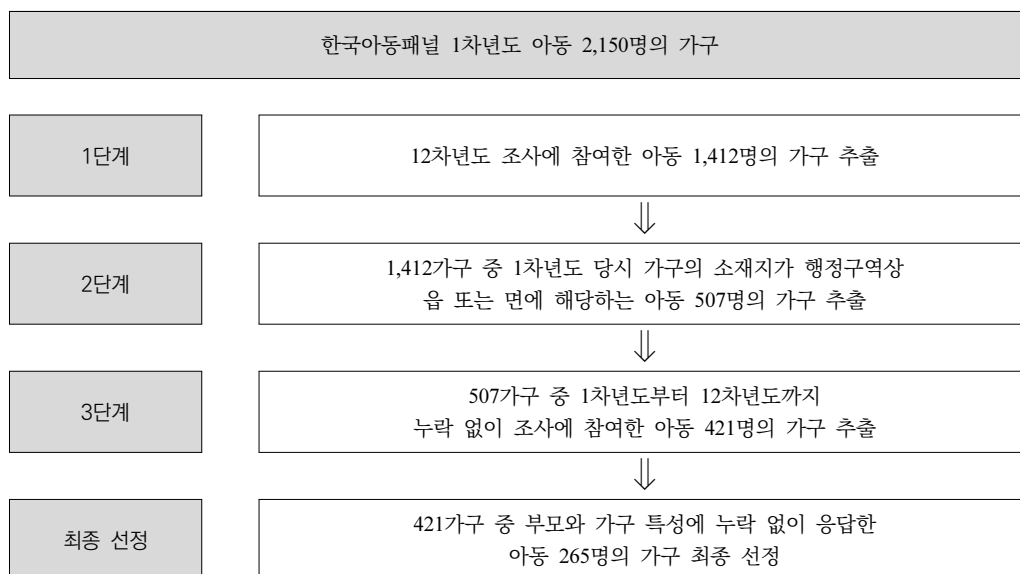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대상 선정 과정

/전문직의 비율 또한 각각 27.1%와 26.0%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농림어업 또는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5.7%에 불과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미취업이 74.0%로 나타나, 취업모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 원 미만이 56.1%로 반수를 상회하였으며, 300만 원대로 응답한 비율 또한 20.8%로, 대부분이 300만 원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구 특성은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가정이 265가구 중 어머니가 외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은 1가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구 특성은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가정이 264가구였으며, 어머니가 외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이 1가구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읍·면 지역 내 유자녀 가구의 도시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해 가구의 이동 시점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아동의 성별과 순위 형제 유무, 부모의 연령, 아버지 직업 및 이직, 가구의 소득 및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살펴보았다. 이 중, 자녀의 성별과 순위 형제 유무만을 제외하면 모두 시간 의존적 변수로서, 종단자료를 활용할 때 어떤 시점의 자료를 투입하는지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 의존 변수의 경우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처리하되, 도시로의 이동이라는 본 연구의 주제를 고려하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 (1차년도 기준)

(N = 265)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아동 성별	남아	134	50.6
	여아	131	49.4
아동 순위 형제	있음	133	50.2
	없음	132	49.8
부 연령	25세 미만	1	0.4
	25세-30세 미만	53	20.0
	30-35세 미만	108	40.8
	35세 이상	103	38.8
모 연령	25세 미만	9	3.4
	25세-30세 미만	102	38.4
	30-35세 미만	110	41.5
	35세 이상	44	16.7
부 학력	고졸 이하	105	39.6
	전문대졸	72	27.2
	대졸 이상	88	33.2
모 학력	고졸 이하	103	38.9
	전문대 졸	84	31.7
	대졸 이상	78	29.4
부 직업	관리/전문직	69	26.0
	사무직	72	27.1
	판매/서비스직	28	10.6
	기능직	81	30.6
	농림어업/노무직	15	5.7
모 취업 여부	취업	69	26.0
	미취업	196	74.0
소득	300만 원 미만	148	56.1
	300만 원-400만 원 미만	55	20.8
	400만 원 이상	61	23.1

주. 소득의 경우,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응답자 수에 미치지 못함.

고자 하였다. 즉 도시로의 이동이 일어난 절단 연도는 이미 이전에 거주지의 변동이 발생한 것이므로 시간 의존 변수 투입 시에는 이동이 발생한 연도의 전년도, 즉 절단 전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변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인 : 가구의 도시로의 이동 시점

자녀를 둔 가정의 도시 지역으로의 첫 이동까지 소요되는 시점을 산출하기 위해 각 연도의 현 거주 지역의 규모에 대한 응답 중 ‘읍·면’을 유지할 경우 0으로,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로 응답한 시점을 1로 코딩하였다. 이 중, ‘읍·면-도시-도시-읍·면’과 같이 거주지의 규모가 바뀌는 경우, 도시로의 첫 이동 시점을 ‘1’로 처리한 후 절단년도 처리하였다. 한편, 종단자료 중 현 거주지의 규모에 대한 자료가 누락된 경우, 읍·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였거나 도시로의 이동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 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읍·면-공백-공백-읍·면’의 경우 공백은 읍·면 거주로 간주하여 누락 시기를 읍·면 거주에 해당하는 0으로 코딩하였으며, ‘읍·면-공백-공백-도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독립변인

(1) 아동 성별 및 순위 형제 유무

아동의 성별과 순위 형제 유무는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중 성별은 남아는 ‘0’으로, 여아는 ‘1’로 코딩하여 남아를 기준집단으로 하였다. 출생순위가 외동이나 첫째면 ‘0’으로, 둘째 이상이면 ‘1’로 코딩하였다.

(2) 부모 연령

부모의 연령은 도시 이동 시점의 부모 연령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도시 이동 시점의 전년도인 절단 전년도의 연령을 투입하였다.

(3) 부모 학력

부모의 학력은 1차년도의 자료를 고졸 이하, 전문대

졸, 대졸 이상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4) 아버지 직업 및 직업 변동 여부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의 9개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유형을 관리자 및 전문가(관리/전문직), 사무 종사자(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판매/서비스직), 기능원 및 조작·조립 종사자(기능직), 농림어업 및 단순 노무 종사자(농림어업/노무직)의 5개 직업군으로 재분류하여 코딩하였다. 아버지의 직업 변동 여부는 1차년도 대비 도시 이동 시점 전년도 직업이 같을 때 0으로, 같지 않을 때 1로 코딩하였다.

(5)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절단 전년도의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개방형 응답 문항을 범주화하여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6) 사회적 지원

가족이 제공받는 사회적 지원은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도구는 정서적 지원(2항목), 도구적 지원(3항목), 정보적 지원(3항목) 및 사교적 지원(4항목)의 4개 하위영역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의 문항의 대표적인 예는 정서적 지원의 경우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도구적 지원은 ‘갑자기 물건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정보적 지원의 경우로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사교적 지원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5점 리커트 척도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의 사회적 지원의 경우 12년간 문항 진술이 다소 수정되었으며, 5차년도와 12차년도는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응답자의 경우 1차년도부터 4차년도는 부모 모두, 6차년도 이후는 어머니만 사회적 지원을 응답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괄 어머니 응답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6차년도부터는 12개 문항을 친가, 외가, 친구와 이웃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되, 본 연구에서는 문항별로 가장 높게 측정된 점수를 사용하였다. 한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5차년도와 12차년도는 절단 전년도까지의 자료를 평균 삽입법을 사용하여 결측값을 대체하였다. 이처럼 처리된 사회적 지원 자료는 절단 전년도까지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예측 변인의 영향력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한국아동패널의 자료수집은 아동 대상의 수행검사와 부모 및 주 양육자 대상의 지필식 설문조사(Paper and Pencil Interviewing; PAPI) 그리고 가구 방문 면접조사(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 대상의 각종 검사도 시행되었고, 4차년도(2011년)부터는 아동이 다니는 기관의 교사도 설문조사 대상에 추가되었다. 이 중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아버지용 설문지, 어머니용 설문지 및 주 양육자 설문지 3종이었다. 이 중 아버지와 어머니용 설문지는 사전에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미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주 양육자 설문지는 가구 방문 시 조사원의 면접으로 수집된 자료이다. 이상과 같이 수집된 2차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CBNU-202210-HR-0227) 받은 후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둔 가구의 도시 이동 시점 및 영향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2.0을 이용한 변인에 대한 기술적인 통계 외에 생존분석을 사용하였다.

생존분석은 사건의 발생 여부와 발생 시점을 설명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의 사건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자녀 가구의 도시 이동으로, 도시로 이동하지 않은 상태를 생존으로, 1차년도 이후 도시 이동까지 걸린 시간을 생존시간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읍·면 지역의 자녀를 둔 가구의 도시 이동 시점과 이동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하였다. Kaplan-Meier 방법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마다 생존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시간에 흐름에 따른 누적 생존함수의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송경일, 최종수, 2008).

다음으로 가구의 도시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독립변인의 변화에 따른 위험비를 산출하여, 추정 계수가 양수인 경우 위험비는 1보다 크게 나타나 가구의 도시 이동 확률은 증가하는 반면 추정 계수가 음수인 경우 위험비는 1보다 작게 나타나고 도시로의 이동 확률은 감소한다고 해석한다(이현정, 이은수, 안혜영, 홍세희, 2016).

III. 결과 및 해석

1. 읍·면 거주 유자녀 가구의 도시 지역 이동 시점

조사 대상의 읍·면 지역에서 최초 도시 지역 이동 시점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도시로 이주한 가구는 265가구 중 263가구(99.2%)로 2가구를 제외하고는 읍·면 지역에서 도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로 이동한 시점을 살펴보면, 자녀가 초등학교 전인 만 6세 때 117가구(44.2%)로 가장 많은 가구가 이동했으며 출생 1년 후인 만 1세 때 84가구(31.7%)가 도시로 이주하였다. 결과적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구 중 263가구(99.2%)가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 중 도시로 이주하였으며, 읍·면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유자녀 가구는 2가구에 불과하였다(표 2 참조).

다음으로 유자녀 가구의 읍·면 지역 거주 생존율 (거주 지속)을 구간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1차(2008)년도의 생존율은 1.00이었으나, 2차(2009)년도는 0.68, 3차(2010)년도는 0.58, 4차(2011)년도는 0.53, 5차(2012)년도는 0.49, 6차(2013)년도는 0.47, 7차(2014)년도는 0.03, 8차(2015)년도는 0.02, 9차~12차(2016~2019)년도는 0.01로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조사 시기인 12차 년도의 생존함수가 0.01으로 조사 시작 당시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자녀 가구 99%가 읍·면 지역을

떠나 거주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2에는 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한 생존 함수가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생존함수 $S(t)$ 는 t 시점까지 생존할 확률로, 도시로 이동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한다. 생존율이 높을수록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1차년도 관찰 시작 이후, 자녀의 연령이 만 1세 때인 2차(2009)년도 시점에서 큰 폭으로 생존율이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가 이후 변화는 완만한 수준이었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 만 6세 때인 7차(2014)년도에 다시 생존율이 가

표 2. 읍·면 거주 유자녀 가구의 도시 이동 최초 발생 시점

(N = 265)

구분	조사차 수(연도)	자녀 연령(만)	빈도(가구)	비율(%)
최초 이동 시점	1차(2008)	0세	0	0.0
	2차(2009)	1세	84	31.7
	3차(2010)	2세	28	10.6
	4차(2011)	3세	12	4.5
	5차(2012)	4세	11	4.2
	6차(2013)	5세	6	2.3
	7차(2014)	6세	117	44.2
	8차(2015)	7세(초1)	2	0.8
	9차(2016)	8세(초2)	3	1.1
	10차(2017)	9세(초3)	0	0.0
	11차(2018)	10세(초4)	0	0.0
	12차(2019)	11세(초5)	0	0.0
	소계		263	99.2
미이동			2	0.8
총계			265	100.0

표 3. 읍·면 거주 유자녀 가구의 생존표 분석 결과

(N = 265)

조사 차수	연도 (자녀연령)	읍·면 소재 유자녀 가구			생존함수
		구간시작 시점 생존표본 수	구간별 이탈자수	구간이탈률	
1	2008(0세)	265	0	0.00	1.00
2	2009(1세)	265	84	0.32	0.68
3	2010(2세)	181	28	0.11	0.58
4	2011(3세)	153	12	0.05	0.53
5	2012(4세)	141	11	0.04	0.49
6	2013(5세)	130	6	0.02	0.47
7	2014(6세)	124	117	0.44	0.03
8	2015(7세)	7	2	0.01	0.02
9	2016(8세)	5	3	0.01	0.01
10	2017(9세)	2	0	0.00	0.01
11	2018(10세)	2	0	0.00	0.01
12	2019(11세)	2	0	0.00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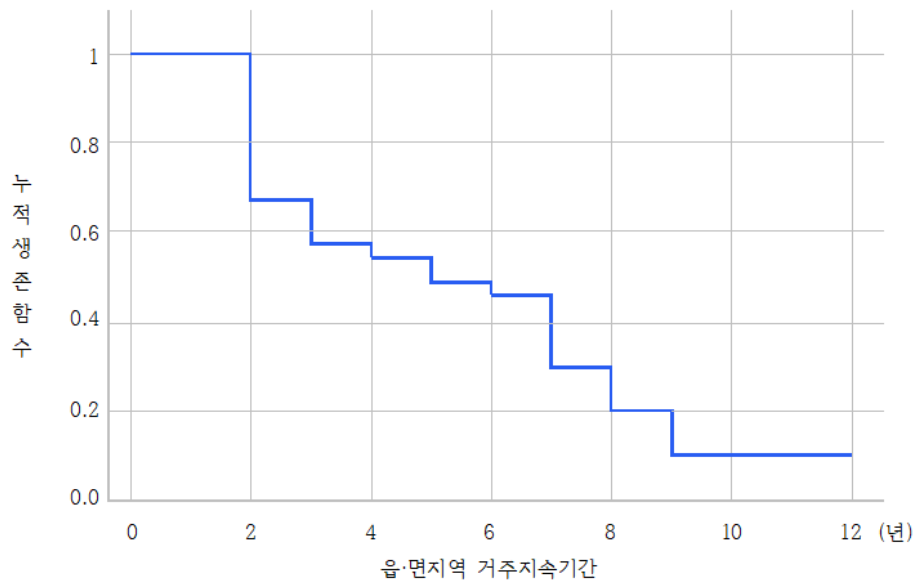


그림 2. 읍·면 지역에 유자녀 가구가 지속 거주할 생존함수

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때 읍·면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율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읍·면 거주 유자녀 가구의 도시 이동 시점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최초 도시 지역 이동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의 성별과 순위 형제 유무, 부모의 연령과 학력, 아버지의 직업과 이직 여부, 가구소득 및 사회적 지지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유자녀 가구의 도시 이동에 시간의존적 변수로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자료 처리가 시행된 변수의 기초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시간 의존적인 특성상 절단 전년

도의 자료를 변수로 살펴보면, 도시 이동 전년의 부모 연령은 아버지가 36.1세, 어머니가 33.5세였으며, 아버지의 직업이 변동된 가구는 전체의 28.3%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 원 미만이 4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400만 원 이상은 34.3%에 불과하였다. 한편 어머니가 응답한 사회적 지원의 평균은 4.01점으로 ‘대체로 그렇다’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도시 지역 이동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변인별로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을 하였다. 분석에 앞서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는 .37 ~ .96로 0.1 이상, 분산팽창계수(VIF)는 1.02 ~ 2.71로 4 미만의 값을 보여 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독립변인의 일반적 특성: 절단 전년도 기준

(N = 265)

변수	구분	n(%)	M(SD)	비고
부 연령	-	-	36.1(4.56)	만 나이
모 연령	-	-	33.5(4.27)	만 나이
부 직업 변동	직업 유지	190(71.7)	-	
	직업 변동	75(28.3)	-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13(42.6)	-	
	300만 원~400만 원 미만	61(23.0)	-	월평균 소득
	400만 원 이상	91(34.3)	-	
사회적 지원	-	-	4.01(0.54)	5점 척도

주.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한 아동 성별과 순위 형제 유무 및 부 직업은 표 1의 일반적 특성에 제시되었음

표 5. Cox 비례위험 모형분석 결과

구분		β	S.E	Exp(B)
아동 성별		.01	.13	1.01
아동 순위 형제 유무		.17	.13	1.18
모 연령		-.07	.03	.94**
부 연령		-.05	.02	.95*
부 직업 (vs. 관리/전문직)	사무직	-.14	.17	.87
	판매/서비스직	-.28	.23	.75
	기능직	-.41	.17	.67*
	농림어업/노무직	-.31	.30	.74
부 직업 변동(vs. 직업 유지)		-.43	.15	.65**
가구소득 (vs. 300만 원 미만)	300만 원~400만 원 미만	-.34	.17	.71*
	400만 원 이상	-.32	.16	.73*
사회적 지지		-.02	.12	.99
-2 Log Likelihood			2,596.33	
$\chi^2(df)$			64.74(11)***	

* $p < .05$. ** $p < .01$. *** $p < .00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자녀 가구의 도시 이동 최소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 아버지의 직업과 직업 변동 여부,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시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관리/전문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직업군의 도시 지역 이동 확률이 감소하였다. 특히 아버지가 기능직에 종사하는 경우 관리/전문직에 비해 도시 이동 비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아버지가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기능직 종사자 가구에 비해 도시 지역 이동 확률이 유의미한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1차년도 조사 시 직업에서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직업이 일치하는 경우에 비해 도시 지역 이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의 경우 300만 원 미만 가구에 비해 300만 원대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400만 원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 모두 도시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성별이나 순위 형제가 있는지에 따라서는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해당 가정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 또한 도시 지역 이동 확률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도비(likelihood ratio) 검정량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chi^2 = 64.74$, $df = 11$, $p < .001$)을 보였다. 이는 모집단의 회귀계수가 적어도 0이 아니며, 본 연구에서 도시 지역 이동 시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설정된 모형과 사용된 변인 간의 합치도가 매우 유의미한 수준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자녀 가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시점과 시간에 따른 발생 여부, 그리고 이동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유자녀 가구의 도시 이동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매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도시 이동은 자녀가 출생한 이듬해와 초등학교 입학하기 바로 전 연령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부모의 연령과 아버지의 직업 변동, 그리고 가구의 소득 수준이 읍·면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 중 일부 직업군 또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

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출생할 당시 읍·면 지역에서 거주하던 265가구를 12년간 추적한 결과, 도시로의 이동은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만 6세가 되는 해와 출생 1년 후인 만 1세가 되는 해에 가장 많았다. 특히 7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등입학 전에 도시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최종적으로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2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큰 틀에서 생애주기 상 결혼 초에는 부부의 통근 거리를 먼저 고려하여 주거지를 정하나, 자녀가 생기면 주거환경과 주변 교육환경이 주거지 이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선행 연구(박환수, 이재수, 2022; 전이봄, 김동준, 이승일, 2020; 정재은, 박천규, 2015; 최열 등, 2010)와 일관되는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산어촌 거주 가정의 경우, Duvall(1962)의 가족 생애 주기상 1단계 가족 형성 이후 자녀가 30개월 미만인 2단계와 자녀가 유아기에 해당하는 3단계에 도시 이동이 대부분 마무리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국내 주거 이동 연구에서 자녀의 학교 군에 따른 주거지 이동은 교육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거주지 내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대부분이기에, 유자녀 가구를 초등 이하의 자녀 가구와 중·고등 자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박환수, 이재수, 2022; 손희주, 남궁미, 2018). 그러나 농산어촌 거주 가구의 경우 자녀가 학령기에 도달하기 전에 도시 지역으로 이미 활발한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본 연구에 기초할 때, 아동기와 청소년기로 구분하는 것을 세분화하여 학령전기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학령전기 또한 영아기와 유아기로 구분할 때 농산어촌 유자녀 가구의 주거지 요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265가구 중 133가구는 패널 아동의 손위 형제가 있었지만, 이러한 손위 형제의 유무가 도시로의 이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의 나이가 교육

목적의 이동 가능성을 높였음을 밝힌 정재은과 박천규의 연구(2015) 결과와는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일관적인 결과는 본 연구의 경우 손위 형제 유무만을 살펴보았을 뿐, 손위 형제의 수나 손위 형제와의 터울까지는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패널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까지 추적하였기 때문에 패널 아동 이후 동생이 출생한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자녀 연령이 만 1세와 초등학교 입학 전인 때에 두드러지는 도시 이동에 대한 요구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정재은과 박천규의 연구(2015)에서는 도시 지역 내에서 근거리 이사까지 포함한 모든 이주를 포함한바, 읍·면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주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단위 가구 입장의 큰 변동은 다소 다른 특성을 가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가구별 자녀 수와 자녀 연령 및 터울 등의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구성함과 동시에 지역 내-지역 간 이주를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소멸은 미혼, 만혼, 비혼 등에 의한 출산력 저하와 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 외에 일자리나 교육 등의 이유로 농산어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회적 유출이 큰 이유를 차지한다(차미숙 등, 2021).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읍·면 지역의 유자녀 가구의 학령기 이전 도시 이동이 자녀 출산 직후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집중된 결과는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 및 양육 요구와 교육 여건이 농산어촌을 떠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산어촌에서 자녀를 키우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영유아 대상의 돌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지역에서의 정착률을 높이고 지역의 인구 유출 속도를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정부는 저출생 현상 장기화로 인구감소지역의 어린이집 폐원이 가속화되어, 농산어촌의 보육 인프라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최근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육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보육서비스 취약지역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고, 농산

어촌의 보육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22b), 이러한 방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역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인프라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경우 한국아동패널에서 지역사회와 공공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 편리성과 이용 만족도를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항에 대한 결측치가 많아 분석 대상의 유실이 큰 관계로 분석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돌봄 외 다양한 양육 인프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읍·면 지역에서 도시로의 이동에 원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읍·면 지역에서 거주 중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도시로 이동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력은 주택 구매나 주거비 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으로의 이동에 소득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라는 결과는 타당하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도시로의 이동 확률이 낮아진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자녀가 출생하고 이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의 소비지출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입이 동일한 경우 자녀의 유무에 따라 실질 소득은 달라진다(장재원, 2014). 일반적으로 거주 비용이 커질수록 주거 이동의 확률이 높아지는 바(Simmons-Mosley & Malpezzi, 2006), 자녀 출생과 양육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험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거주지의 이동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노동패널의 유자녀 가구 자료를 분석한 전이봄 등(2020)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더 길다는 점을 밝혀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반면 김경희와 김선미의 연구(2010)에서는 소득이 낮은 가구가 고소득층보다 주거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현재 주거지에 장기간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같이 소득의 영

향력이 거주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도시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직업이 변동한 가구의 경우 도시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농산어촌에서 소득 수준이 낮았던 유자녀 가구가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다양한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직업이 변동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쟁점은 농산어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높은 도시 거주자의 생활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도시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Østby(2016)도 지적한 점이다. 즉 농산어촌의 저소득 가구 중 이들 가구가 도시 지역으로 이동한 이후 직업 선택이 용이해지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여건 또한 좋아졌는지에 대한 추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유자녀 가구가 읍·면 지역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육아 및 교육 인프라 개선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도 함께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직업이 기능직의 경우 도시로의 주거 이동 확률이 낮은 반면 관리직 또는 전문직 종사자의 가족은 도시 이동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직군에 비해 고용이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아 이직률이 낮은 관리/전문직은 도시로 이주율이 높은 반면, 기능직과 같이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고 소득이 낮으면 현 거주 지역에 남아 다른 일 자리를 찾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학력이 높아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큰 경우 대도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숙련, 저부가가치, 저임금 직종은 주거 이동이 어렵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관되는 결과이다(권상철, 2010; 김우영, 홍성효, 2020; 최예슬, 2021).

그러나 가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아버지의 직업상 변동이 있는 경우 도시로의 이동 확률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는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1차년도 당시 읍·면 지역 거주

가구의 아버지 직업 중 기능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다.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 결과, 전체 아버지의 직업은 관리직과 전문직이 각각 10.6%와 24.1%로 총 34.7%에 이르며, 사무직 종사자 또한 30.8%인 반면, 기능직 종사자는 19.0%에 불과하였다(조복희 등, 2009, p. 71). 이에 반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읍·면 거주 가구는 관리/전문직이 26.0%에 불과한 반면 기능직은 30.6%로 나타났다. 기능직의 경우 건설, 채굴, 제조, 가공, 운송, 기계, 전기/전자, 통신 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읍·면 지역에서 기능직으로 종사하는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단순 노무 또는 조작 업무가 아닌 기능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고, 높은 숙련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 기준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507가구 중 265가구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는 12년간의 종단 연구 결과 누락된 사례와 독립변수의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거한 결과이다. 그 때문에 본 연구결과 265가구 중 최종적으로 2가구만이 도시 지역으로의 이동 없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석에 사용되지 않은 156가구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둘째로, 본 연구는 생존분석을 사용한 연구의 특성상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당시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 중 도시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를 절단 시점으로 보고 분석을 하였다. 그 때문에 농산어촌에서 도시로 이동했다가 다시 농산어촌으로 돌아온 가구나 1차년도 당시 도시에 거주하였으나 농산어촌으로 이주한 가구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제로 한국아동패널의 12차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읍·면 지역 거주 가구는 75가주로 보고되었다. 즉 이 중 1차년도에 읍·면 지역에 거주하였던 421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는 총 16가주로, 59가구가 새롭게 읍·면 지역으로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귀촌 인구

중 46.8%가 30대, 15.9%가 40대로(귀농·귀촌종합센터, 2023) 가족 형성기 및 확장기에 해당되는 연령의 농산어촌 이동 비율이 높게 보고되고 있는바, 농산어촌으로 유입되는 유자녀 가구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이어질 때 실효성 있는 지역소멸의 대응책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는 사례 수의 한계로 농산어촌에서 이동하는 도시를 대도시와 중 소도시로 구분하여 살펴보지 못하였다. 최근 지역 격차에 관한 문제점은 수도권 과밀이나 대도시 집중 현상과도 관련된다. 대도시 이동 가구와 중소도시 이동 가구의 특징은 다를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한 연구가 추후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 이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 의존 변수에 해당하는 예측변수는 이사가 이미 이루어져, 보고된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주거 이동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문제일 수 있으므로, 절단 전년도의 특성을 영향력으로 해석할 때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읍·면 지역의 유자녀 가구의 도시 이동이 발생하는 시점을 확인하고 영향요인을 검증함으로써 자녀를 둔 가정에 필요한 요구를 파악하여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감사원 (2021).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서울: 감사원.
 권동현, 이영호 (2007).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환경 요구에 관한 연구: 가족생활주기와 주택규모에 따른 주부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9(1), 89-96.
 권상철 (2005).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시기별 유출지역 특성과 이주자 선별성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571-584.
 귀농·귀촌종합센터 (2023). 2022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https://www.returnfarm.com:444/cmn/sym/mnu/mpm/1040201/htmlMenuView.do>에서 4월 1일 인출

- 김경휘, 김선미 (2010).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불평등에 관한 연구;주거이동 경험 가구를 중심으로. 제3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48-176.
- 김대웅, 김창숙, 박윤현 (2019). 공공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 이용 편리성, 양육 스트레스, 유아 미디어 이용시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4(5), 1-18.
<http://doi.org/10.20437/KOAECE24-5-01>
- 김민철, 김근용, 천현숙, 강미나, 이운상, 배순석, 송준혁, 김덕례 (2016).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주거 지원 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김우영, 홍성호 (2020). 고학력 부부의 대도시 집중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21(1), 75-91.
<http://doi.org/10.23129/seouls.21.1.202003.75>
- 김은설, 이정원, 지성애, 이세원 (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대한민국 정부 (2019. 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본.
- 박진아, 장유진 (2015). 생태체계 요인에 따른 취업모의 취업지속 영향 요인: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육아정책연구, 9(1), 149-175.
- 박천규, 이수옥, 손경환 (2009). 가구생애주기를 감안한 주택 수요특성 분석 연구. 국토연구, 60, 171-187.
<http://doi.org/10.15793/kspr.2009.60..010>
- 박환수, 이재수 (2022). 생애주기 단계별 가구의 주거이동 패턴과 특성 비교 연구: 2001-2020년 서울대도시권 가구이동. 도시부동산연구, 13(4), 5-31.
<http://doi.org/10.21447/jusre.2022.13.4.5>
- 보건복지부 (2022a).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b).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 (2021-2027). 세종: 보건복지부.
- 손희주, 남궁미 (2018). 가구 생애 주기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1), 169-196.
- 송경일, 최중수 (2008). SPSS 15를 이용한 생존자료의 분석. 서울: 한나래.
- 신나리, 안재진, 이정림, 송신영, 김영원 (2008). 한국아동패널 2008.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양미선, 이윤진, 정도영, 한재희, 장혜진 (2021).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유기현, 정희주, 서순탁 (2013). 소득 및 자산수준에 따른 주거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5), 145-163.
- 유한별, 탁근주, 문정승 (2021). 한국 지방소멸 요인과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머신러닝 방법을 통한 탐색. 지방정부연구, 24(4), 443-476.
<http://doi.org/10.20484/klog.24.4.18>
- 이경희, 민인식 (2017). 가구와 주택특성이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 국토연구, 93, 75-91.
<http://doi.org/10.15793/kspr.2017.93..006>
- 이상림, 이지혜, Köppen, B., 임소정, 성백선 (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진, 이정원 (2014).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정책연구, 8(2), 65-93.
- 이재림, 옥선화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 이창효, 이승일 (2012). 가구 구성원 변화에 따른 주거이동의 영향 요인 분석: 수도권 거주가구의 주택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국토계획, 47(4), 205-217.
- 이현정, 이은수, 안혜영, 홍세희 (2016). 영유아의 육아지원 기관 첫 입소시점과 영향요인 검증: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한 생존분석. 육아정책연구, 10(3), 71-94.
- 임미화 (2013).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구주 연령별 주거이동 발생 요인. 부동산연구, 23(2), 79-94.
- 장재원 (2014). 서울시 생활권별 영유아 가구의 주거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영유아 가구와 비영유아 가구 간 비교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한두 (2010).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신도시 주거환경의 평가: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4), 45-56.
- 전이분, 김동준, 이승일 (2020). 자녀유무와 소득계층에 따른 가구유형별 거주기간에 관한 연구: 저소득층 가구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5(5), 27-40.
<http://doi.org/10.17208/jkpa.2020.10.55.5.27>
- 정의철 (2000). 소득변화가 주거이동 및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프로빗 모형을 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6(1), 45-61.
- 정재은, 박천규 (2015). 자녀 나이가 교육목적 주거이동계획에 미치는 영향 분석: 프로빗 모형을 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25(2), 35-44.
- 정희수, 권혁일 (2004). 생애주기가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2(1), 5-25.
- 조복희, 신나리, 안재진, 이정림, 최윤경, 송신영, 김주연, 김영원 (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조한숙, 문혁준 (2010). 농촌지역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정체감 연구-어머니 양육행동과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7(4), 127-151.
- 차미숙, 김승중, 남기찬, 민성희, 서연미, 김수진, 이보경, 최예슬, 조운주, 이인규 (202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최막중, 임영진 (2001).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입지 및 주택유형 수요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36(6), 69-81.
- 최열, 김영민, 조승호 (2010).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 특성 분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D, 30(3D), 313-321.
- 최예슬 (2021). 지방 중소도시의 유출인구 직종 특성 분석.

- 국토연구, 108, 3-18.
<http://doi.org/10.15793/kspr.2021.108..001>
- 최진호 (2008). 한국 지역 간 인구의 이동의 선별성과 이동 이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1(3), 159-178.
- 최현철 (2016). *사회과학 통계분석: SPSS/PC+ Windows 23.0(개정판)*. 파주: 나남출판사.
- 통계청 (2020. 6. 29). 보도자료: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가 동과 향후 인구 전망.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400&bid=205&act=view&list_no=383417 에서 2023년 1월 15일 인출
- 행정안전부 (2023. 1. 15). 보도자료: 2022년에도 인구감소 이어져, 3년 연속 감소세. https://www.mois.go.kr/fi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_MSTR_0000000000008&nttId=97993에서 2023년 1월 14일 인출
- 홍선관 (2017). 중년기 성인이 지각하는 주거환경 만족 및 사회적 지지가 노후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에솔공학멀티미디어논문지*, 4(1), 51-60.
<http://doi.org/10.29056/idaem.2017.06.05>
- 홍승범, 박혜경 (2013). 지리적 이동에 관한 심리학적 탐색: 주거 유동성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및 사회적 지지 추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4), 47-68.
<https://doi.org/10.21193/kjspp.2013.27.4.003>
- 황정은, 한송이 (2017). 육아지원기관의 충분성과 사회적지지, 가족 상호작용이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과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하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1(4), 75-103.
<http://doi.org/10.22590/eeee.2017.21.4.75>
- Chen, Y., & Rosenthal, S. S. (2008). Local amenities and life-cycle migration: Do people move for jobs or fun? *Journal of Urban Economics*, 64(3), 519-537.
<https://doi.org/10.1016/j.jue.2008.05.005>
- Clark, W. A. V., & Onaka, J. L. (1983). Life cycle and housing adjustment as explanations of residential mobility. *Urban Studies*, 20(1), 47-57.
<https://doi.org/10.1080/713703176>
- Duvall, E. M. (1962). *Family development* (2nd ed.). Philadelphia, PA: Lippincott.
- Østby, G. (2016). Rural-urban migration, inequality and urban social disorder: Evidence from African and Asian citi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33(5), 491-515. <https://doi.org/10.1177/0738894215581315>
- Pagani, A., Baur, I., & Binder, C. R. (2021). Tenants' residential mobility in Switzerland: The role of housing functions.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36, 1417-1456.
<https://doi.org/10.1007/s10901-021-09874-5>
- Rashidi, T. H. (2015). Dynamic housing search model incorporating income changes, housing prices, and life-cycle events. *Journal of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141(4), 04014041.
[https://doi.org/10.1061/\(ASCE\)UP.1943-5444.0000257](https://doi.org/10.1061/(ASCE)UP.1943-5444.0000257)
- Rossi, P. H. (1955). *Why families move: A study in the social psychology of urban residential mobility*. Glencoe, IL: Free Press.
- Simmons-Mosley, T. X., & Malpezzi, S. (2006). Household mobility in New York City's regulated rental housing market.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15(1), 38-62.
<https://doi.org/10.1016/j.jhe.2005.09.004>
- Singer, J. D., & Willett, J. B. (1993). It's about time: Using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to study duration and the timing of event.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18(2), 155-195.
<https://doi.org/10.3102/10769986018002155>
- Wills, T. A. (1991).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M. S. Clar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2, pp. 265-289). Thousand Oaks, CA: Sage.